



2026. 10. 21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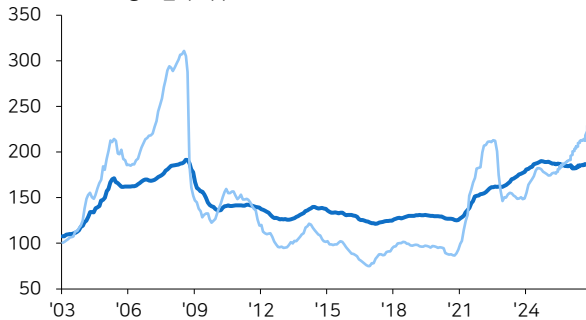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7p (-p WoW)

(pt) — 신조선가 지수
— 중고선가 지수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2.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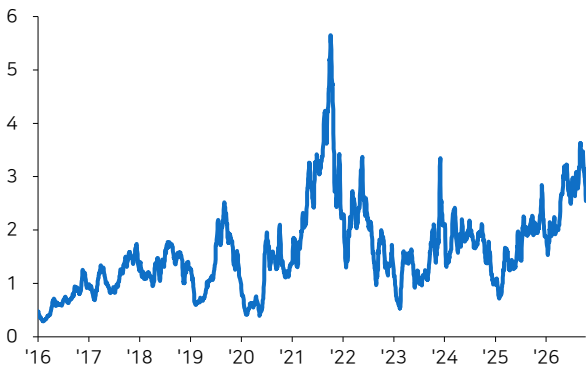
(달러/톤) — 중국 내수 후판가격
----- '10~'19 평균



건화물운임(BDI)

2,546.0p (+3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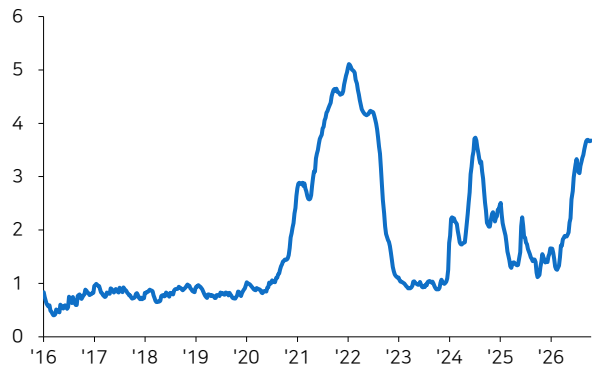
(천pt) — BDI



컨테이너운임(SCFI)

3,679.6 (+15.5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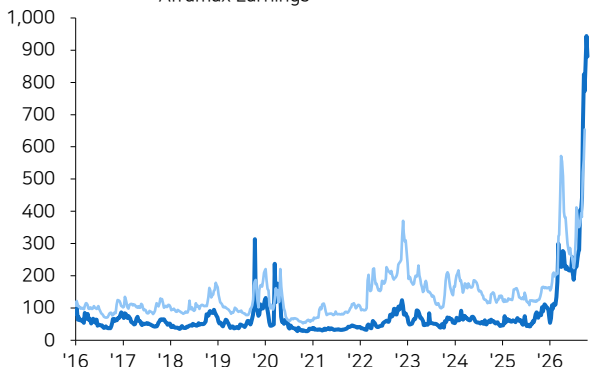
(천pt) — SCFI



VLCC Spot Rate

880.8WS (-63.4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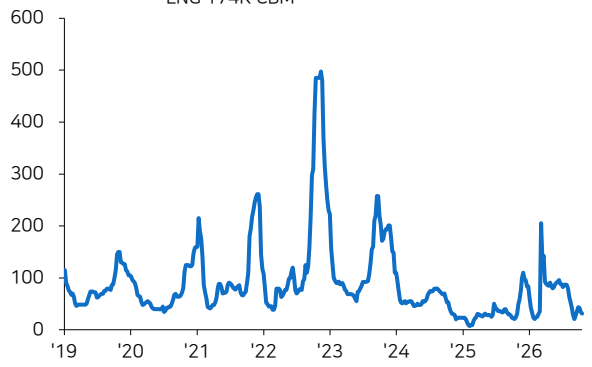
(WS) — VLCC Earnings
— Aframax Earnings



LNG Spot 운임

31.0천달러 (-3.3p WoW)

(천달러/일) — LNG 174K CBM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현대, HMM 서 1조 9,196억원 규모 친환경 컨테이너선 8척 수주 (아시아경제)

<https://zrr.kr/zcbSP0>

HD한국조선해양이 HMM으로부터 1만3,000TEU급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을 총 1조9,196억원에 수주했으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상호가 각각 2척, 6척을 건조해 2029년까지 순차 인도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에는 LNG와 기존 연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과 HD현대에코비나가 제작한 LNG 연료탱크가 탑재된다고 알려짐.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과 핵심 기자재의 그룹 내 공급망을 활용해 친환경 선박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HMM과의 협력 및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이번엔 그리스" HD 현대중·한화오션, TKMS와 CPSP '리벤지 매치' (데일리한국)

<https://zrr.kr/c3zOu3>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그리스의 신형 잠수함 최소 4척 도입 사업에 참여했으며, 2036년까지 250억유로를 투입하는 국방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독일 업체와 경쟁한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HDS-2300급 잠수함과 현지 조선사 스카라망가스와의 협력을, 한화오션은 4,000톤급 KSS-III 잠수함과 오넥스그룹과의 협력을 앞세워 현지 건조 및 기술이전 등 현지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알려짐. 독일 TKMS는 그리스 해군의 기존 독일제 잠수함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212CD급을 제안했으며, 한국 기업의 수주 여부는 현지 산업 기여도와 유럽 업체들의 네트워크 대응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라고 전해짐.

거제시, 삼성중공업과 대규모 투자협약...첨단 건조기지 구축 (뉴시스)

<https://zrr.kr/MGWRek>

삼성중공업이 경남 거제시·경상남도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9년까지 거제사업장에 첨단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인프라 건조 기지를 구축하고 추가 인력 고용을 추진한다고 보도됨. 이번 투자는 삼성그룹이 지난 7월 발표한 거제사업장 10조원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거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알려짐. 이번 투자를 통해 조선·해양산업의 생산 기반 강화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경쟁력 제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전해짐.

삼성중공업, 美 조선소 체질 개선 '시동'...SDSU와 7개월 만에 첫 공동 프로젝트 착수 (더구루)

<https://zrr.kr/sHVJdi>

삼성중공업이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학교(SDSU)와 공동 설립한 SSAM 센터를 통해 첫 한미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조선 생산성 향상과 현지 숙련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고 보도됨. 주요 연구는 VR·AI 기반 도장 교육과 마찰교반용접(FSW) 기술 고도화, AI·센서를 활용한 용접 결함 실시간 감지 및 예측으로 구성된다고 알려짐. 삼성중공업은 미국 현지 연구 역량과 자사 조선 기술을 결합해 검사 비용과 재작업 부담을 줄이고, 한미 조선산업의 기술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선투자 vs 선금융' 갈등에 발 묶인 한화 필리조선소...수주 물량 축소 리스크 우려 (더구루)

<https://zrr.kr/nXVNeO>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 확장 사업이 1,500억달러 규모 한미 조선업 협력 펀드의 자금 집행 방식에 대한 정부와 업계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50억달러를 투자해 도크 2기와 안벽 3기를 추가하고 연간 건조 능력을 최대 20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자금 조달 협의 지연으로 초기 수주 물량 대응과 함정 MRO 거점 구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알려짐. 정부는 기업의 선투자 결정 후 사업성을 평가해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선업계는 정책금융기관의 사전 자금 지원 확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협의체는 프로젝트별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짐.

Tankers trickle into Russian ports after US diesel deal (TradeWinds)

<https://zrr.kr/txzSXh>

미국과 러시아의 연료 공급 합의 이후 러시아산 디젤 수출이 재개되는 가운데, 최근 프리모르스크항에서 선적된 유조선 3척 중 2척은 영국·EU 등의 제재 대상 선박이라고 보도됨. Kpler에 따르면 올해 디젤 선적 예약량은 일일 59,000배럴이며, 합의에 따라 러시아산 디젤 30만톤이 이달, 50만톤이 11월에 미국 등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제재 대상 선박의 운항 재개에도 보험 및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EU와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